곰술누리숲길 탐방

2020182028 게임공학과 이규원

* 좋았던 점

곰술누리숲길의 가장 좋은 점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한다. 산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인데, 기숙사생 입장에서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자 할 때, 접근하기 쉬운 위치라 생각한다.

중간 중간에 의자 등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눈을 감고 잎사귀들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집중하며 명상 하기에도 좋았다. 특히 흔들 의자나 위에 천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 햇빛의 영향을 덜 받는 점에서 더 좋았다.

우연치 않게, 다람쥐가 나무에서 내려와 물을 떠먹는 모습을 봤는데 물이 고여 있을 수 있게 의자가 파여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운이 좋게도, 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

* 개선할 점

이 산책로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만들기 위해선 의자끼리 마주보고 있거나, 붙어있는 의자가 생겨야 한다. 대부분의 의자가 작게 있어 한두명이 앉아 있으면 근처에서 쉴 수 없고, 사회적 관계형성이 생기기에 어렵다고 생각한다.

* 도시에서의 의미

우선 본래 의미였던 산업단지의 공기나, 소음을 흡수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많은 중장년층, 외국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근처에 누가 사는 지 산책하면서 볼 수 있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시흥에 지낸다는 걸 머리로만 알았지,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한국공대와의 연관가능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과제와 학업의 부담속에서 지친 학생들이 공장의 매연을 맡으며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것 보다, 비교적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러닝, 워킹하며 연애를 하고자 하는 활동이 시작되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는데, 공대에서 소개팅은 커녕 코로나 이후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이 곰솔누리숲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저 학생들을 구경하고, 또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 야외, 포유류, 구멍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